

생업을 위해 양계인이 해야할 일



김 중 설

본회 전북지부 육계분과위원장

$470,000 + 880,000 = 1,350,000 - 900,000 = 450,000$ 이상은 1,000수기준 추대+사료=생산비-판매대금=? 위와 같은 경우애나 사육관리 소홀로 질병발생시는 고스톱용어로 피박까지 맞게되는 경우를 초래한다.

한마디로 건국 이래 사상 유래없는 복경기였으며 장기 불황이다.

축산업중 가장 먼저 생산기술이 발전한 육계산업이 왜 가격 안정에는 가장 낙후되어 있는가? 우선 생계유지와 돈을 벌어보려고 덤빈 사업이니 만큼 닭의 생태를 짚고 넘자.

닭이란 타축중에 비해 번식력이 가장 우수한 가축이며 성장율 또한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브로일러 종계가 몇수이며 하루에 생산되는 알이 몇개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또 현재 길러지고 있는 병아리가 닭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에 먹여지고 있는 사료가 전·후기가 몇톤이나 생산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역시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어차피 돈을 벌려고, 시작한 사업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생산과 소비측면에 관한 정보쯤은 알고 해야 할때가 온 것이다.

그러려면 최소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의 생산자 단체인 양계협회나 조합 또는 지역 계우회에 참여하여 이웃과 지역간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생산된 계육의 유통에 적극 참여하고 소비홍보 활동에 따른 대책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여건과 제도하에서는 안정과 발전이란 극히 어려운 사정이나 우리 모두가 개개인 나름대로 분열되지 않고 생산자 단체에 참여하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보호하고 권익을 찾으면서 수급전망과 가격 동향의 흐름을 파악하여 입추도 조절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이 생기는 것이다.

요즈음 낙농, 양돈 등 조직화된 단체의 의사표시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 모든 육계업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며 단합되지 않으면서 남을 탓하는건 누워서 침을 뱉는 격이라는 걸 왜 모르는가!

우리모두가 영세하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격언을 되새기면서 협력하고 단합하여 생산자 조직강화에 앞장서서 자신의 생업과 안정적인 산업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의 자구책을 하루속히 찾아야 되겠다. **양계**

조직화된 단체 의사 표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